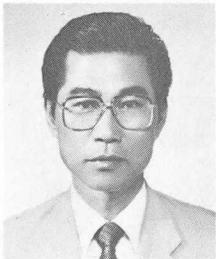




돼지는 축주(畜主)마음의
거울이다.
돼지를 병어리와 같은 어린애로 알고,
자기가 돼지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여 사양관리를 하면
성공의 요결(要訣)인
것이다.



돼지의 사양관리



곽 종 형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I. 돼지의 관리

1. 돼지관리의 요결(要訣)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축주(畜主)와 돼지와의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 만이 만족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본다.

돼지는 자신이 바라고 의사를 나타내는 언어가 없으므로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지 못하면서 축주에게는 순종하는 것이다. 즉, 돼지는 축주 마음의 거울로서 일상관리는 그대로 축주의 양돈경영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돼지관리의 요결(要訣)은 돼지의 몸과 마음을 먼저 축주가 알아야 한다. 우량한 소질을 가진 돼지를 도입하여 좋은 시설에 수용하더라도 돼지의 생리에 맞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돼지는 기후, 풍토와 기타 외계의 감각(感作)에 대하여 비교적 둔감하나 감정이 있으며, 배가 고프고, 여름 햇볕에 더움을 느낄 줄 안다. 귀여워 하면 좋아하고, 무리하게 학대하면 분개하게 된다.

돼지는 착유우나 산란계와는 달리 매일의 노력이 그날에 성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등한시 하기 쉬운데, 매일의 미비한 점이 누적되면 결국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돼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근본의 요결은 돼지를 병어리와 같은 불구의 어린애로 알고, 자기가 돼지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여 관리를 하면 바로 성공의 요결(要訣)인 것이다. 언제나 돼지의 상태를 관찰하여 그 배분(排糞)과 식욕에 유의하고, 돼지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비의 손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며, 사조와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하는

“

**돼지의 피부에 신진대사(新陳代謝)를
돕기 위하여 1일 조식으로
2회 솔질을 해야 한다.**

**또한, 돼지의 건강상태와 사료급여의 적부
판단기준은 배설한 분(糞)·뇨(尿)를
관찰해야 한다.**

”

마음 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2. 돼지의 몸 돌보기

돼지의 피부는 피지선(皮脂腺)이 없으므로 피부가 건조하여 윤지(雲脂)가 생기기 쉬우며, 그 때문에 간지러움 즉, 선각(癬覺)으로 인하여 피부병이 되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돼지의 품성은 마찰성이 있어 돈사의 벽이나 기둥을 몸으로 비비는데, 이는 윤지에 의한 간지러움 때문이다. 사람도 가끔 목욕을 하고 싶은 것과 같이 돼지의 피부에 대한 신진대사(新陳代謝)를 돕는 것으로 솔질을 해 주어야 한다.

돼지 몸의 손보기는 성질을 온순하게 한다. 축주와 친근하게 되고, 돼지의 개성을 파악하며, 돈체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므로 1일 조식으로 2회 솔질을 하는 것이 좋다.

3. 돈사(豚舍)의 관리(管理)

돼지는 흔히 불결한 가축으로 취급하기 쉬우나, 그 품성이 청결성이 있어 깨끗하고 건조한 곳을 좋아한다.

돼지는 자는 곳과 분뇨(糞尿)를 배설(排泄)하는 곳, 사료를 먹는 곳이 판연하게 다른

을 알 수가 있다. 부고(敷藁)를 자주 넣어 주고, 청소를 자주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애돈심(愛豚心)을 재는 척도가 된다.

돈사의 청소와 돼지 몸의 손보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배설한 분(糞)·뇨(尿)의 관찰로서 분·뇨의 상태가 그 돼지의 건강상태와 사료급여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분의 상태는 돼지의 연령, 급여사료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다르다. 건강한 돼지의뇨는 등황색을 나타내며, 열이 있으면 황갈색으로 변하고 점조성을 띤다. 배분의 여상을 대별하면 변비와 하리로 구분된다.

돈사에는 출입구에 소독조를 상설하여 소독제로서 소독한다. 돈사는 연 수회에 걸쳐 세탁소다액으로 씻고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4. 돼지의 운동

번식돈은 물론, 비육돈에 있어서도 적당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데 대체로 운동을 시키지 않는 편이 많다. 돼지는 다른 가축이나 가금과는 달리 그 특성이 운동의 필요성은 적으나 보건상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다. 사사(舍飼)하는 것에 비하여 방목하여 자유로이 운동을 시킨 것은 체질이 강건하며,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게 된다.

운동을 시키면 근육, 골격, 내장 등 제기관이 발달하고 왕성하게 된다. 일광을 시키고 신선한 공기와 신선한 청초 및 흙을 채식케 하여 급여사료의 결함을 보완하고 돼지를 건강하게 생육하도록 해야 한다. *